

제주방언의 보전 전략*

문 순 덕**

차 례

1. 서론
2. 제주방언의 보전정책 현황
 - 2.1. 국가·지자체의 언어정책
 - 2.2. 전문가집단의 연구 상황
 - 2.3. 제주방언의 보전 및 파급 활동
3. 제주방언의 보전정책 전략
 - 3.1. 보전정책 수립
 - 3.2. 관련 기관의 역할 제고
 - 3.3. 제주방언의 보전 및 파급 전략
4. 결론

1. 서론

국가와 민족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며, 우리나라처럼 국가 내에서 같은 민족이 공통어를 사용하면서 지역별 방언이 살아있는 곳은 언어 자원이 풍부하다고 본다. 즉 국가

* 이 글은 한국언어학회 제50차 정기학술대회(2009. 11. 6.~7. 제주대학교)에서 「언어정책과 보존—제주방언을 중심으로」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단위의 공통어 사용을 강요해왔지만 각 지역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삼았다.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것이 역사이고 삶의 형태라면 언어정책도 다양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어의 가치를 등외시한 채 단순히 통일의 원칙으로 '표준어'를 제정하고 과급시키는 일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어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현대사에서 방언정책은 '보존'에서 '활용'으로 그 비중이 옮겨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어'의 보전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역어 보전은 자생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야말로 생존전략으로 변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요소에 관심을 가졌으며, '지역사, 지역문학, 지역문화, 지역어' 등 '지역'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방언 보전의 중요성은 표면화된 시각이며 보전 정책도 나름대로 논의되었다고 본다. 문순덕(2008)에서는 제주방언의 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물도 제시하고 있다. 제주방언의 보전에 대한 열망은 지역의 정체성 소멸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언어의 종말, 언어의 사멸, 언어의 멸종, 언어의 보전 정책 등에 쓰인 '언어'는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쓰였지만 소수자의 언어인 방언에도 적용된다. 한국어의 하위개념으로 각 지역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주방언은 중세국어의 모습(음운, 형태, 통사, 어휘 등)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각광을 받아왔다. 제주도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주방언이 거론된 것은 제주문화의 핵심에 제주방언이 놓여 있음을 인정한 결과다. 그러나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명명하는 제주방언의 존재여부와 문화의 생명력이 비례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언어학자나 제주방언 마니아들이 보전과 활용의 중요성을 외치고 실천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그것들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적 개념의

언어보전 정책이 지역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2. 제주방언의 보전정책 현황

문화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게 되면 언어의 가치 기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화란 비가시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무형의 문화를 의미한다. 제주방언에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어 그 산물인 생활사가 드러난다. 제주방언에서 제주문화의 현상과 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제주여성문화유적』(2008), 『제주문화상징』(2008)이 있다. 『제주여성문화유적』을 보면 각 마을에 있는 유적지의 명칭이 제주방언으로 남아 있어 그곳에 얽힌 생활문화사를 알 수 있으며, 『제주문화상징』 99선을 보면 언어에 응축된 문화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의 정체성을 논의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언어의 정체성이라 본다.

제주방언은 학문의 영역에서 언어학자들의 논의 대상이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대중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다음은 방언보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1. 국가·지자체의 언어정책

한 나라의 언어정책을 보면 그 나라의 민족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언어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업무 보고 자료¹⁾를 보면 알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자료(2008~2010)를 참조해서 정리했다.

<표 1> 국가의 언어정책

연도	사 업 명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의 올바른 가치 확산 및 한국어를 문화외교 핵심요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문화학교 운영 - 한글주간 선포 - 국어사랑 캠페인 - 한글을 응용한 산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 - 한글의 집 설치, 현지밀착형 세종학당 확대 설치, 재외문화원을 한글 수출의 전진기지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체성 및 브랜드 확립-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문화관 조성 등 한글의 가치 확산 및 문화브랜드화 추진 -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명칭 통합 및 확충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세계화: 세종학당 확충(국내외 90개소) - 세종학당 운영(6개 국어 확대) <p>* 4대 중점 과제²⁾</p>

<표 1>은 현 정부의 언어정책을 보여준다. ‘국어’의 활용으로는 주로 국외에 한글 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한글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의 국어정책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한글날’ 기념을 위한 간헐적 행사가 수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날’을 기념하며 일시적인 축제를 벌이듯이 제주의 대중매체에서는 모국어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제주방언에도 관심을 갖는다. 언어학자와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은 민족어(국가어)에 대한 존중감이

2) 4대 중점과제로는 ‘문화향유 기반 확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형 관광 레저 산업 육성’ 등이며,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가 국어정책에 해당된다. 문화체육부 국어민족문화과에서는 국어정책 전반을 관장하며,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이 고유 업무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국어정책 시행기관으로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있다.

없는데 지역어를 예우할까를 염려한다. 여기에 외국어 일색인 방송 언어와 상호 등은 문화의 정체성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가의 언어정책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도의 문화정책과 추진 사업을 통해서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을 확인해 보겠다.³⁾

<표 2> 제주도의 언어정책

연도	중점 사업	세부 사업 명
2006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환경 조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 - 제주어사전 편찬, 제주문화대사전 편찬 등 ○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추진 - 마을조사
2007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조사 편찬 ○ 제주의 문화상징물 원형 발굴 정립 추진 ○ 제주어사전 편찬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문화의 재조명 및 자원발굴 ○ 민속자원의 문화관광자료 기반 구축 ○ 민속자원의 원형 보존 및 전승기반 구축
2008	영상산업 등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 - 제주신화 시나리오 공모 ○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지정 콘텐츠화 - 제주어, 한라산, 제주 초가, 해녀, 오름 등
	제주어보전 및 육성 활성화 - 제주어보전 및 육성조례 제정: 2007.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 수립 ○ 제주어사전(개정 증보판) 편찬 사업

3) 여기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2006. 07. 01.) 2009년까지의 추진 결과와 2010년 추진 계획에 드러난 방언정책을 찾아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교통국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참조해서 정리했다.

2009	전통문화원형 보전 및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문화원형의 창조적 집적화로 콘텐츠 실용화 - 전국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공모 소재: 해녀, 제주어) o 제주어사전(개정 증보판) 발간 완료
2010	창의적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제주문화의 상품화 추진 - 제주 10대 상징물 기반 문화콘텐츠 소재 발굴

<표 2>에서는 제주도의 문화정책에 제주방언이 포함되며 독자적인 사업보다는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시 제주방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자체가 제주방언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2007. 09.)의 제정에서 알 수 있다.

「국어기본법」(법률 제9491호 일부 개정 2009. 03. 18.; 2005. 07. 시행)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역어의 보전정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국어정책은 국가를 기본으로 하지만 지역어의 보전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방언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도에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제주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해서 제주방언활용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행사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 보인 제주방언에 대한 관심이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학자는 연구와 자료구축의 한 축을 담당했고, 대중들은 공개적인 행사장에서라도 제주방언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의 하나로 ‘제주방언대회’가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는 지원금을 통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홍민표(2008: 314)에 의하면 일본사회에서 방언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된 요인으로 “① 대부분의 일본인이 방언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정도

의 공통어 사용 능력이 높아진 점 ② 방언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점 ③ 공통어에 의한 표준과 통일보다는 표준에서 벗어난 개성과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풍조가 생긴 점" 등을 고바야시(小林)의 견해를 빌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②는 제주방언의 현실이며 ③은 언어학자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언어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2. 전문가집단의 연구 상황

언어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언 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소멸을 막는 장치로 대안을 제시했다.

현평효(전 제주대학교 총장)를 비롯한 1세대 언어학자들은 자료를 구축하고, 그 자료를 재해석했다. 특히 민속학자(김영돈, 현용준; 전 제주대학교 교수, 진성기; 삼양민속박물관장)들이 현장에서 수집·정리한 자료집은 현재도 제주방언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⁴⁾ 2~3세대 학자들도 현장에서 방언을 조사하고 구축하면서 연구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자 누구나 원하는 방언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언연구에 대한 관심이 연구자들만의 것이어서 인력과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방언자료 구축은 현재진행형이며, 개별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방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주방언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보자 확보, 이를 기록할 수 있는 장비, 시간, 예산, 전문인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시점에서 자료구축을 추진하기는 요원하므로 부분적으로 적용하

4) 석주명 『제주도방언집』(1947: 서울신문사출판부)·『제주도자료집』(1971, 보진재) 등은 외지인이 기록한 제주방언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집이다. 이 외 제주방언 자료들은 문순덕(2008: 293~294)에 소개되어 있다.

면서 공동의 작업을 시도하는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조성이 방언 보전정책에 해당된다.

2.3. 제주방언의 보전 및 파급 활동

제주방언의 보전 현황으로는 문순덕(2008 : 294~295)에서 '제주어말하기 대회, 제주어 관련 학술대회 및 간행물, 제주어 관련 대중매체 자료, 국내 지역어 말하기대회 현황'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해서 2009년에 추진된 행사가 더 있다. 제주문인협회 주관 '제주어시낭송대회'(2009. 09. 10.)⁵⁾, 서귀포시문화원 주최(2009. 10. 07. ; 초·중·고등학생 중심) '제주어말하기대회', <사> 제주어보전회> 주최 '제주어말하기 대회'(2009. 11.~12.)가 있다. 또한 <사>동화섬>에서는 '제주사랑말하기대회'⁶⁾를 개최해서 제주의 실화를 제주방언으로 구연하게 한다. 이는 다른 단체의 말하기행사와 성격이 다르다. 또한 제주문화원 주최 '제1기 문화대학'(2009. 02. 02. 개강)에서는 '제주어 강좌'를 개설하는 등 제주방언이 문화강좌의 제목이 될 정도로 제주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방언이 담화공동체의 주요소임을 경험한 세대들은 물론이고, 문화의 계승을 위해서는 신세대로의 이행이 필요한데, 이들을 어떻게 방언구역으로 유도하느냐가 보전정책이라 본다. 지금까지는 주로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을 교육에 초점을 둔 편이었다. 즉 교사양성과 교육과정 개설에 역점을 두었고, 교사의 역할과 교육기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또한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

-
- 5) 탐라문화제 기간 중 제주문인협회 주관으로 표준어로 창작된 시를 제주어로 옮겨서 시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초·중·고등부이다. 제주교총과 제주예총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주어말하기대회'가 2009년에도 시행되었다. 특히 제주교총은 2009년에 '제주어시화전'을 개최해서 제주방언 활용을 시도했다.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제주어말하기대회'(3회)도 연속 사업이다.
- 6) 이 단체에서는 2008년부터 제주방언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은 언어의 보전정책을 한국어, 지역어(제주방언), 외국어로 분리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즉 앞으로는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을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제주방언의 대중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3. 제주방언의 보전정책 전략

보전이란 현 상태가 훼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차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보존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전정책이 될 수 있다. 언어의 소멸을 논의할 때 소수의 언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방언의 보전 전략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을 과급 전략으로 바라보는 전망이 필요하다.

박옥현 옮김(1999: 56~57)에 의하면 “언어학에서 가장 긴급한 과제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수언어를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힘 써야 할 것이다. (...) 소수언어가 다수언어 특히 영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언도 표준어로 인해 위협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오영나 옮김(2008: 477)에 의하면 “언어의 소실은 우리 모두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이고, 인류의 경험을 이해시키는 또 다른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위 인용문은 언어의 지속력은 민족과 지역의 정체성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소멸되는 지역어의 위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언어소멸의 위기를 직감할 때 보전에 주력해야 함을 알려준다.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가 지정되었으며, 영어교육기관⁷⁾이 들어서면 한국어의 소멸을 염려하고 있지만 이런 기관이 상주해 있는 지역 사람들은 언어의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된다. 즉 세계 공용어로 떠오른 영어사용구역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한국어 사용을 기피할 것이며, 이에 더해 제주방언의 기피·소멸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주방언이 어떻게 각인되어야 할까, 정답이 있을까. 이를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보전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제주방언 보전 정책⁸⁾으로는 학자, 지자체, 교육기관, 일반인들의 각자 역할이 있다.

3.1. 보전정책 수립

3.1.1. 제주방언의 위상 정립

제주방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언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합일이 필요하다. 즉 방언 사용이 가치가 있고, 문화유산의 계승자라는 의무와 권리 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방언의 경제적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 제주도는 관광지여서 관광 상품(관광지, 상품 등)에 방언 사용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3.1.2. 제주방언 활동가 양성

방언교사 양성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다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맹목적 수단으로 방언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 여기서 교사는 제주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제주어보전회에서는 제주방언 보전과 활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제주방언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7)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영어전용 국제학교 12개교(초등 4, 중등 5, 고등 3)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8) 문순덕(2008 : 300~307)에서는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으로 '제주어표기법 제정, 제주어 교육과정 운영'과 '언어정책 방법'을 제안했다.

3.1.3. 방언교육 환경 조성

교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방언사용권역을 조성해서 교육성을 띠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때에 단순히 말하기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방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언권역을 설정하여서 '제주방언체험장'을 마련한다. 방언구연자가 상주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방언으로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한다. 이 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방언 사용길'을 지정하고, 그곳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방언으로 대화하기를 유도한다. 또한 '5분발언대' 등을 설치해서 누구나 신청하면 제주방언으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방언전용 무대를 제공해 준다.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구비문학자료로서 가치가 높지만 제주방언으로 구송하고 기록된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제주방언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특히 「제주칠머리당영등굿」(중요무형문화제 제71호)이 세계무형유산(2009. 10.)으로 등재되면서 제주굿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심방들의 대사가 모두 제주방언으로 진행되므로 이 의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방언 보전은 필수적이다. 즉 제주방언체험 교육장으로 '제주굿청'을 설정하는 것도 보전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심방들의 대사를 알아들으려면 제주방언 듣기능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 마을 곳곳의 지명을 제주방언으로 잘 살려서 보전하는 것도 제주방언 보전의 한 방법이다. 『제주여성문화유적』(제주발전연구원, 2008), 각종 지명사전 등에 기록된 제주방언들은 살려 쓰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어휘들이다.

3.1.4. 방언의 문자화(기록화)

방언은 구어여서 기록문화로 남겨야 한다. 이때 녹음장비 등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고, 기록한 후 후손들이 언제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가 자료 구축이 우선이겠지만 방언은 더욱더 중요하다.

방언을 문자화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언어학자가 하는 방법이 있다. 대중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말하기대회가 가장 보편화되었다(대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대화를 녹음하기 등). 문자화 수단으로 일기, 독후감 등 글쓰기대회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방언의 문자화를 위해서 제주방언표기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강영봉 외, 『영주어문』 15집, 2008.)

3.2. 관련 기관의 역할 제고

3.2.1. 전문가집단의 역할

언어학자들은 제주방언을 학문적 영역에서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가치를 알리는데 일차 목표가 있다. 언어학자는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원 자료인 제주방언이 살아남지 않으면 원하는 연구물을 얻을 수가 없다. 단순히 제주방언이 연구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 어휘에 담긴 역사성, 방언 소멸의 원인, 보전 방법 등을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학자들의 관심은 과장이 적을 수도 있다. 우리들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은 보전과 전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자들은 제주방언의 보전 의미와 가치를 규명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언중들이 보전에 동참한다면 제주방언의 생명력은 유지될 것이다.

3.2.2. 지자체의 역할

제주방언 보전정책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2008년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세부 사업 추진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단체 행사시 제주어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정도이며, 방언자료집으로 『개정 증보 제주어 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을 발간한 정도이다.

상명리(제주시 한림읍 소재) 마을 입구의 간판은 방언 홍보의 예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마을홍보판을 만들어서 제주방언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권장할 만하다.



<상명리 입구에 설치된 제주방언 안내문>

3.2.3. 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행사 주최가 되어서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언어사용은 화자가 듣고, 기억하고,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언어교육 중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제주방언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언어 사용 집단에 따라 방언 사용이 제한적이라도 많이 들을 기회가 된다면 방언 보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 체험 방법으로 '제주굿'(본향당굿, 영등굿 등)이 진행되는 특정 공간을 현장 방문하는 것이 보전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문화체험도 되지만 심방들의 구수한 사설(서사무가)을 알아듣고, 이해하려면 수준 높은 방언 지식이 필요하다.

방언교육프로그램 적용은 주로 학교교육과 연계시키는데, 유아기 언어 교육의 중요성(부모의 방언에 대한 인식도 중요함) 보편적인 이론이므로 여기에 방언교육을 적용하는 것도 보진정책의 한 방법이다. 즉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서 만들기 놀이교육(떡, 찰흙제품 등: 2009년 10월 9일 한글날 행사 중 자모음만들기 놀이가 있었음)에 제주방언을 적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보기 등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제주도육청에서는 제주방언 교재-『제주어 교수학습자료』(2006), 『제주어와 생활 I』(2007), 『제주어생활Ⅱ: 제주어로 배와 보게마썸』(2008), 『속담으로 배우는 제주어』(2009)-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3.3. 제주방언의 보전 및 파급 전략

3.3.1. 제주방언의 홍보와 확산 방안

제주방언의 파급 전략으로 대중매체,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

한국어자격증에 해당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 KBS한국어능력시험'이 있는데 이 제도를 참조해서 제주방언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인증제를 획득하면 제주방언 활동가로 흡수한다.

KBS제주방송총국에서 '제주어'의 가치를 드러내는 광고(2009. 11.)가 있었으며, KCTV 프로그램인 「삼춘 어디 감수과」는 제주어 전용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 제주방언 전용시간을 편성해서 뉴스, 게시판 등에 적용해보는 시도도 한 방법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표어, 포스터에 제주방언 사용을 시도해 본다. 제주방언 구연가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구술한 CD를 제작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혼자 배울 수 있는 자료 제작이 중요하다.

방언교사 양성을 위하여 제주방언 교육과정을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다. 제주도내 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 국어국문학과 등) 교육과정에 제주방언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또한 이 교과목 이수기간에 학생들은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을 방문해서 제주방언 구연자와 방언체험활동을 하거나 제주방언 활동가로 실습하고, 이를 실습시간에 반영해 준다.

문학작품 창작에 방언 적용은 자주 논의된 것이며, 이때 주의할 점은 창작의 자유는 허용하되, 표기의 통일이 필요하다. 제주방언으로 창작된 여러 작품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단어를 여러 형태로 표기한다면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방언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제주방언을 발음기호로 표기하고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재미를 곁들인다. 제주방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방언구연자의 이야기를 녹음한 후 반복해서 들려주기 등 방언교육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방언 전용 카페,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을 활성화한다.

3.3.2. 제주방언경연대회 활성화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제주방언경연대회(말하기, 연극 포함) 두드러지게 활성화되고 있다. 대중들이 제주방언의 귀중함을 인지하고 일상어를 공식어로 전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제주방언의 사용 기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전의 의무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제주방언으로 말을 할까? 대화 장소의 공공성 여부와 청자의 성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교차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성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방언 선택에 자유롭지만 어린이나 학생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방언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지금도 방언에 대한 계층적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만 전담시키려고 했던 방언교육 방법을 전환해서 언중들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3.3.3. 제주문화자원의 방언 기록화

제주의 인문분야, 자연분야-식물, 해조류, 어류, 곤충-등을 제주방언으로 조사·기록한 후 표준어와 병행해서 설명하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된 지역의 지명이나 생태와 관련해서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보전정책에 속한다. 제주방언 ‘꽃자왈, 불턱, 올레’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했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문화에 녹아있는 문화어를 제주방언에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제주문화어 측면을 보면 제주의 대표성을 띠는 돌문화에는 ‘산담, 밧담, 올렛담, 돌하르방, 물통(용천수, 봉천수)’ 등이 있다. 제주의 음식용어로는 ‘뭍국, 수애(순대), 돛배고기, 추렴, 빙떡, 마농지, 전복죽, 자리회’ 등이 전승되고 있다. 통과어에 남아있는 제주방언으로는 ‘할망상(삼신할망상), 붓뒤창옷, 올리친심, 아기구덕, 당구덕, 가문잔치, 도감, 우시, 가문반, 문전제, 고적, 설배, 모듬벌초’ 등이 있다. 신앙문화로는 조왕할망, 귀양풀이, 푸다시(뉘들임)가 있다. 일상생활용어로는 ‘안팎거리, 올레, 물질, 불턱’ 등이 있다. 여신의 이름으로 ‘설문대할망, 삼승할망, 자청비, 감은장아기, 백쫂도, 영등할망’ 등은 지금도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제주도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제주문화를 제주방언으로 브랜드화하는 것도 방언보전 전략의 하나이다.

제주방언화자들이 ‘담화공동체의 제1 요소로 제주방언을 인지하고 있는가, 자신들이 제주방언을 사용하고 보존의 주체가 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제주방언은 자신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으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제주방언이 소멸될 수 있다고 보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주방언이 소멸된다면 삶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제주방언은 생명력이 강해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는가, 만약 제주방언이 정말로 당대에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가, 제주방언의 보전 주체와 방법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제주문화는 고유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누가 먼저 특허권을 차지할는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전통 지식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주의 문화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제주방언 보전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전통)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전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방언정책의 대안이라 본다.

우리나라에서 '생태주의'가 모든 학문 분야로 확대·적용된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언어의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제주문화의 총체인 제주방언은 살아있는 언어이다. 언어의 소멸이 먼저 올지,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의 소멸이 먼저 올지 모르지만 대부분 대상이 사라지면 언어도 사라지게 마련이다.

제주방언은 생활어지만 사용 인구와 사용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보전정책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대중화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언어학자들의 학문적 접근과 구술자료집 발간이 있었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말하기대회를 개최하는 정도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제주방언말하기 대회는 늘어나겠지만 이는 제주방언 마니아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대회 횟수와 참가자의 수에 비례해서 제주방언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이는 활용의 한 측면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는 문화콘텐츠 자료가 풍부하다고 믿으며, 이를 발굴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문화콘텐츠의 중심에 제주방언이 놓여 있으며,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려면 언어 지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전은 활용을 전제로 하므로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은 제주방언을 제주도의 공식 언어로 예우하고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은 인식의 차원이어서 공공재의 개념으로 투자하

고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정책은 사문서화 될 것이다. 관광지 훼손은 눈 앞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흥망성쇠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정책은 이를 초월하는 영역이어서 우리가 방언의 보전과 활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제주방언 보전은 담화 공동체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주방언이 제주사람들의 의사소통수단으로 살아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다. 방언의 소멸은 언어의 역사성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제주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어휘의 소멸은 제주사람들의 정체성 유지와 관계가 있다. 제주방언이 사라지면 우리의 역사도 사라지며, 과거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언어는 생명체인가, 언어의 종말은 어떤 결과를 야기할까,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지는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가?’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종합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주방언의 보전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핵심어: 제주방언 보전 전략, 보전정책, 파급활동, 언어정책, 국어정책, 방언정책, 문화콘텐츠, 문화정체성

<참고 문헌>

- 강영봉 외(2008), 『제주지역어 생태지수 조사보고서』, 국립국어원·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
- 강영봉(2008),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 『영주어문』15, 영주어문학회, pp.5-31.
- 강정희(2008), 「형태에 관한 제주방언 표기」, 『영주어문』15, 영주어문학회, pp.53-62.
- 권루시안 옮김(2005),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 두행숙 옮김(2005), 『멸종 사라진 것들』, 들녘.
- 문순덕(2008), 「제주어의 문화정책 방안」, 『제주발전연구』12, 제주발전연구원, pp.291-309.
- 박성일 옮김(2008),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 박세연 옮김(2009),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21세기북스.
- 박옥현 옮김(1999), 『생태언어학』, 한국문화사.
- 오영나 옮김(2008),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 정승철(2008), 「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 『영주어문』15, 영주어문학회, pp.33-51.
-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제주발전연구원(2008), 『제주여성문화유적』.
- 홍민표(2008), 「일본의 국어정책」, 『사회언어학』16-2, pp.301-321.

<Abstract>

A Preserving Strategy of Jeju Dialect

Moon Soon-deok

Jeju dialect is considered to be valuable and should be preserved, so that dialectologists and zealots for Jeju dialect have tried to mention and practice its preservation and importance. The establishment of its policy, however, is beyond their capacity. Surveying the present situation on the preservation policy of Jeju dialect, this paper is to propose its prospects.

First of all, the achievement of the 1st generation dialectologists is presented, and the activities of the 2nd and 3rd generation dialectologists are introduced. Moreover, the practices of the national and the regional language policy are discussed. The policy on Korean as a national language and a regional dialect is chosen to maintain and set up a cultural identity. Various 'competitions of Jeju dialect' by self-governing commun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 have preserved spread Jeju dialect.

It is certain that training the actors, establishing the position, promot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keeping a record of Jeju dialect are proposed as a prospect of the preserving policy of Jeju dialect. In the aspect of the role of the related institution, it is necessary that expert groups, self-governing commun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its policy positively. For the strategy of preserving and spreading Jeju dialect, a institutional device should be provided to app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en the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of Jeju called Jeju dialect are used as contents.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lot of material for cultural contents to develop and use in Jeju. There is Jeju dialect in the middle of its cultural contents. Linguistic knowledge has to be accompanied to use the existed materials without asking questions. If it is not invested and practiced as a concept of public goods, the preserving policy of Jeju dialect will be a private(dead) document.

- keywords: Jeju dialect, preserving policy, spreading effect, language policy, Korean policy, dialect policy, cultural contents, cultural identity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5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